<구결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좌담회>

구결학회의 나아갈 길

일시 : 2008. 2. 19. 19:30~21:00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 지하 대강당
사회 : 정재영(대표이사)
정리 : 김지오(총무간사)

사회자 : 구결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구결학회의 나아갈 길에 대해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전임 회장님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고영근 : 저는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을 쓰면서 중세국어에 대한 패러다임을 구축하였고, 한편으로 「석독구결의 국어사적 가치」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구결학회에서 구결 강독회를 시작하면서 국어사에서 고대국어를 전문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대국어 전담 강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고대국어 강좌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 참석한 분으로부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성우 : 제가 회장이 되었을 때 구결 연구는 미흡하였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구결 강독회가 끝나면 늘 뒤풀이가 있었는데 술자리가 구결 연구의 활성화에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진지한 세미나가 있었고 회원들의 인간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아세아 제민족의 문자"라는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는 구결 연구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결 연구의 전국화(全國化)를 위해 광주 전남대, 대구 경북대, 전주 전주대, 부산 동의대, 청주 서원대, 강릉 관동대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원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고정의 : 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고 연구 인력도 상당수에 이른 지금 앞으로의 학회 발전과 연구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학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과제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차자표기에 관한 입문서가 필요합니다. 초학자들로서는 古文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차자표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자표기에 대한 입문서의 출판이 긴요합니다. 둘째로, 문헌 자료 조사의 기반 마련입니다. 차자표기 자료의 문헌과 정보를 집약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헌 소개를 활성화, 구체화하거나 소장처, 관련 논문 목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자료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연구할 때에는 자료 입력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여러 사람의 협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거친 성과물을 공유함으로써 구결연구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회자 : 고정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회의 기관지인 『口訣硏究』의 제호를 써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말씀하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 광 : 저는 국어학사에 대한 연구를 譯學 중심으로 전개해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회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어사 연구에 있어서 서양의 질서정연한 이론을 중심으로 언어학적 지식을 지닌 연구가 필요합니다. 구결은 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한문에 대한 진지한 사고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떤 한문에 어떤 구결을 붙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는, 한자음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학문 연구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분야에서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문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존 연구에 대한 단순 찬반론식 논문은 신뢰성을 떨어뜨리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논문을 비판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거하여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임용기 : 제가 구결학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훈민정음 연구와 관련한 학문적인 필요에 의해서였습니다. 이제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어사 관련 연구 단체로서 국어사연구회, 국어사자료학회에서 이름을 바꾼 국어사학회, 구결학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작년에 국어사학회와 구결학회의 통합이 논의되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두 학회의 통합을 꾀하는 일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사회자 :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전임 회장님 가

운데 심재기 선생님께서는 급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현재 구결학회에서는 월례 강독회를 진행 중이고, 이와 별도로 중세국어에서부터 부호구결에 이르기까지 국어사 전반에 걸쳐 매주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임의 활성화를 주도하셨던 선생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호 : 2000년 각필구결의 발견 이후 젊은 연구자들은 이 자료를 막연한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 중에는 유일하게 이전경, 장경준 선생님만 각필구결의 자료 조사에 참여하였었고, 2002년 1월에 몇 사람이 모여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유가사지론』에 대해 이미 상당히 연구를 한 장경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우리들은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특히 출신 학교와 지도 교수가 제각각인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가 공부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재 선생님께서 추진하신 학술진흥재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받게 되었고, 모임도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각 학교의 학생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주셔서 이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승재 : 구결학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결학회의 결성, 창립 과정에 제가 총무 일을 맡아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구결학회'라는 명칭에 관하여 '한국문자학회' 등의 제안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그 후 1996년에 학회가 활성화되다가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습

니다. 하지만 각필구결의 발견으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새로운 자료의 발견이 결정적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회로 인하여 타 학회에서 부러워하는 힘이 생깁니다. 즉 일본과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본의 국보급 자료도 직접 보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적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가 풍부한 일본 학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인력낭비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정광 선생님의 지적대로 기존의 논의에 대한 찬반식 논의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학자들도 한국의 구결과 일본의 훈점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석가탑 출토 묵서지편과 같은 자료도 앞으로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남풍현 : 그동안 구결학회의 浮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동안 口訣學會는 一貫되게 持續的으로 공부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口訣과 借字表記 資料가 계속 발굴되어 그것을 소화하기가 바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인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학회의 침체기라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달려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중 : 구결학회에 바라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실 구어와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문어가 존재할 수 있

다'라는 가능성을 전제로 구결 연구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둘째로, 하나의 문자가 복수의 기능이나 복수의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국어사의 시대 구분과 관련하여 전기중세국어의 자료를 구결학회에서 고대국어 자료로 다루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로, 용어의 사용을 분명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라시대의 이두와 향찰, 조선시대의 이두와 구결에 대한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또한 구결, 이두, 향찰의 개념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인한 : 최근의 젊은 연구자들 이후의 후속 세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의 한 서점에서 전공자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고문서 해독과 실제'라는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도 이런 성격의 개론서를 기획하고 발간하는 일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원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가능하고 학회 차원에서도 가능할 텐데, 이런 개론서가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김영욱 : 오늘의 연구사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 업적에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결학회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망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먼저, 음독구결과 석독구결에 이어 자료의 발굴에 이어져 각필자료가 많이 발견되었고 최근 들어 석가탑의 묵서지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학회의 회원들 간에 연구 분야를 분담하여 자료의 효율적인 발굴 및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목간 자료에 대한 연구도 중요합니다. 삼국시대 목

간자료와 다른 자료를 연결함으로써 이두, 구결의 발전 방향 모색의 근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문자 및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요즘 역사학계와 고고학계에서 구결학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구결학회의 학제간 연구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회자 : 다음으로 일본 선생님들과 저희 선생님들께서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근 : 일본에서는 고대국어와 관련한 내용, 예를 들어 훈점이나 만엽집 같은 것들은 어떤 과정이나 과목을 통해 전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케다 : 일본에서는 보통 각 선생님이 세미나 형태의 수업을 실시하면서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문헌에 대한 해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엽집과 같은 것은 주로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 구결학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고바야시 선생님께서 한국에도 각필구결이 있을 거라 하셨을 때,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한국에서 각필구결이 발견되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구려에서 훈독이 고안되어 백제, 신라로 전해져 마지막으로 일본에까지 퍼져나갔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학회에서 고바야시 선생님과 남풍현 선생님을 초청하기도 하고, 도야마 대학 국제학술회의에 구결학회 회원

들을 초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한일 간에 학문 교류가 이처럼 활발한 학회는 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교류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구결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구결학회의 나아갈 길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은 언제나 거듭 들어도 그 중요성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의 연구와 젊은 학자들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더욱 훌륭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